

보도시점 2024. 9. 13.(금) 배포 2024. 9. 13.(금)
회의종료(별도 안내)이후

제4차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 개최

- 100~200일 내 초고속 mRNA 백신 개발, 보건의료산업 하반기 수출 확대 방안, 규제개혁마당을 통한 규제혁신 과제 개선방안 등 논의 -

<요약본>

정부는 9월 13일(금)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추진단 대회의실(서울)에서 「제4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이하 “바이오헬스혁신위”)」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민간의 혁신적·창의적 의견이 자유롭게 제시되고 논의될 수 있도록 민간 부위원장을 위촉한 취지에 따라 김영태 부위원장(서울대병원장)이 주재하였으며, ① mRNA 백신 주권 확보 방안(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추진계획), ② 보건의료산업 하반기 수출 확대 방안, ③ 바이오헬스 규제장벽 철폐 및 법령정비(상시안전)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넥스트 팬데믹 대비 및 mRNA 플랫폼 확보를 위해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에서는 'mRNA 백신 주권 확보 방안'을 혁신위에 보고하였다. 2028년까지 mRNA 백신 플랫폼을 확보하고 100 ~ 200일 내 초고속 백신 개발을 위해 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따라 '25년부터 사업을 착수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의료산업은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되었다. '24년 상반기 수출액은 122억 달러로, 올해 목표치인 235억 달러 대비 51.9%를 달성하였다. 특히, 의약품(44.6억 달러)과 화장품(48.1억 달러)은 반기 최고 실적을 달성하였다.

하반기에도 수출 증가가 전망됨에 따라 '보건의료산업 하반기 수출 확대 방안'을 수립하여 '24년도 수출액 목표치를 250억 달러로 6.4% 상향 조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 맞춤형 판로개척, 범부처 연계 총력 지원 등 보건의료산업 수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상시 안전인 '바이오헬스 규제장벽 철폐 및 법령정비'에서는 '24년 2분기부터 규제개혁마당(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내 설치)을 통해 106개 과제를 발굴하여 단순 민원, 중복과제를 제외한 67개 과제를 접수하고, 부처 검토, 자문단 회의 등을 거친 38개 과제 중 18개 과제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특히, 킬러 규제로 선정된 6개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였고, 앞으로 혁신위에서 검토한 과제에 대해서는 규제개혁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지속 추진사항을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날 바이오헬스혁신위 김영태 부위원장(서울대병원장)은 “바이오헬스 산업은 제2의 반도체 산업이자 국민 건강과 국가 안보 확보를 위해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분야”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혁신위 차원에서 점검하고 지속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상세본>

정부는 9월 13일(금)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추진단 대회의실(서울)에서 「제4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이하 “바이오헬스혁신위”)」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민간의 혁신적·창의적 의견이 자유롭게 제시되고 논의될 수 있도록 민간 부위원장을 위촉한 취지에 따라 김영태 부위원장(서울대병원장)이 주재하였으며, ① mRNA 백신 주권 확보 방안(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추진계획), ② 보건의료산업 하반기 수출 확대 방안, ③ 바이오헬스 규제장벽 철폐 및 법령정비(상시안건)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제4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개요 >

- 일시/장소 : '24.9.13.(금) 14:00 ~ 16:30 /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추진단 대회의실
- 회의안건 : (안건1) mRNA 백신 주권 확보 방안
(안건2) 보건의료산업 하반기 수출 확대 방안
(안건3) 바이오헬스 규제장벽 철폐 및 법령 정비 (상시안건)

넥스트 팬데믹 대비 및 mRNA 플랫폼 확보를 위해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에서는 'mRNA 백신 주권 확보 방안'을 혁신위에 보고하였다, 2028년까지 mRNA 백신 플랫폼을 확보하고 100 ~ 200일 내 초고속 백신 개발을 위해 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따라 '25년부터 사업을 착수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의료산업은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되었다. '24년 상반기 수출액은 122억 달러로, 올해 목표치인 235억 달러 대비 51.9%를 달성하였다. 특히, 의약품(44.6억 달러)과 화장품(48.1억 달러)은 반기 최고 실적을 달성하였다.

하반기에도 수출 증가가 전망됨에 따라 '보건의료산업 하반기 수출 확대 방안'을 수립하여 '24년도 수출액 목표치를 250억 달러로 6.4% 상향 조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 맞춤형 판로개척, 범부처 연계 총력 지원 등 보건의료산업 수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상시 안전인 '바이오헬스 규제장벽 철폐 및 법령정비'에서는 '24년 2분기부터 규제개혁마당(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내 설치)을 통해 106개 과제를 발굴하여 단순 민원, 중복과제를 제외한 67개 과제를 접수하고, 부처 검토, 자문단 회의 등을 거친 38개 과제 중 18개 과제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특히, 킬러 규제로 선정된 6개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였고, 앞으로 혁신위에서 검토한 과제에 대해서는 규제개혁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지속 추진사항을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안전1] mRNA 백신 주권 확보 방안

정부는 미래 팬데믹에 대비하여 개발 속도가 획기적으로 빠른 백신 플랫폼을 확보하기 위한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 신규 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2028년까지 mRNA 백신 플랫폼 확보를 목표로 4년간('25~'28) 비임상부터 임상3상까지 연구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mRNA 백신 사업은 도전·혁신성·시급성을 인정받아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었으며, 총사업비 등 구체적 사업계획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25년 정부 예산안 국비 290억 원 반영)

정부는 지난해 5월 수립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통해 팬데믹 발생 전에 백신 신속 개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mRNA 백신 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해 왔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백신 개발 소주기 전략을 수립하여 사업을 총괄하고, 다부처 협력을 통해 인허가, 특허 등 규제의 신속한 해소를 지원하며, 국립감염병 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mRNA 백신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지원 패키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본 사업을 통해 검증된 mRNA 백신 플랫폼을 활용하여 다음 팬데믹이 오더라도 100 ~ 200일 이내에 신속하게 백신을 개발하고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안건2] 보건의료산업 하반기 수출 확대 방안

정부는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화장품 등 보건의료산업 수출이 3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관련 부처 역량을 결집한 '보건의료산업 수출 확대 방안'을 통해 하반기 수출 활성화를 추진한다.

'24년 상반기 수출액은 122억 달러로 올해 목표치(235억 달러) 대비 51.9%를 달성하였고, 특히 제약·바이오와 화장품은 반기 실적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다.

이에 올해 수출 목표치를 235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상향하여 투자유치·공동연구 확대 등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K-culture 기반 국가브랜드 제고 등 수출 확대를 위해 범부처가 연계하여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 (의약품) 83억 달러 → 92억 달러, (의료기기) 59억 달러 → 60억 달러, (화장품) 93억 달러 → 98억 달러

분야별 세부 추진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제약·바이오

①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

K-바이오 메가펀드를 연내 총 6천억 원 규모로 조성하여 제약 등 바이오헬스 기업에 1천억 원 이상 집중투자하고, 금리우대 및 대출한도 확대 등 4.2조 원 규모의 다양한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또한, 혁신 신약 창출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숙련된 바이오 전문인력도 집중 육성**한다.

* 국가신약개발사업('21~'30, 2.2조 원, '24년 1,921억원), 글로벌 진출 및 파트너링 촉진 신약개발 지원('24년 288억원), 스마트 임상시험 신기술 개발연구('23~'27, '24년 33.7억 원)

** K-NIBRT,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양성센터,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

② 고품질 국산 의약품의 글로벌 진출 및 판로개척 지원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 및 연구기관 간 기술교류, 파트너링, 공동R&D 등 개방형 혁신을 위한 협업 기회를 제공하고, 미국 진출 거점인 CIC(Cambridge Innovation Center) 입주기업('24년 30개소, 6.1억 원) 확대를 추진한다.

* 벤처카페(매월), KHIDI-다케다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2월), 노보노디스크 파트너링 데이(4월), 암젠 골든티켓(5월), BIO KOREA(5월), BIO PLUS(7월),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워크(11월) 등

동남아·중남미·중동 등 유망 수출 상대국 허가 간소화를 추진하며, 글로벌 시장 유통채널 구축을 지원하고,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한 현지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동남아) 싱가포르 GMP 상호인정('24.2), 필리핀 의약품 신속심사 적용('24.3), (중남미) 파라과이 허가등록 간소화('24.7), (중동) UAE 신속허가 인정 위한 MOU 체결('24.9) 등

③ 수출장벽 극복을 위한 최신 정보 제공

최신 글로벌 규제 및 산업 동향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하는 한편, 글로벌 시장 진출에 필요한 기술거래·임상·인허가 등 정보를 준비단계(기초 컨설팅), 진출단계(전문 컨설팅), 정착단계(심화 컨설팅)에 따라 전주기 컨설팅을 통해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② 의료기기

① 주력·유망 의료기기 맞춤형 지원을 통한 수출 극대화

영상진단, 로봇, 디지털헬스케어, 체외진단기기 등 수출 상품의 임상 데이터 확보를 지원하고, 우수기술 확보를 위해 해외 기관과의 글로벌 협력 연구 및 시판 전·후 임상시험을 지원한다.

* 글로벌 혁신의료기술 실증지원센터('24~'28년, '24년 37억 원, 6개소),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기술상용화 지원('22~'26년, '24년 90억 원 19개 과제)

중남미, 중동 등 신흥 수출국 정부 간 업무 협력을 통해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외 의료진 국내 연수* 및 의학회** 연계 제품 시연 등을 통해 기존 주력 시장의 점유 확대를 지원한다.

*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트레이닝)지원센터(4개소) : 서울아산병원, 연세의료원(병원형, '20~), 성남산업진흥원, 인천테크노파크(광역형, '22~)

** NASS(북미척추학회, 9월), UAA(아시아비뇨학회, 9월), ENDO24(세계소화기내시경학회, 7월) 등

② 글로벌 규제 변화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범부처 협력

메드텍 수출지원 협의체*, 해외인증지원단** 등을 통해 강화되는 의료기기 글로벌 규제 변화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최신 정보와 기술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주 국제인증지원센터, 코트라(KOTRA) 등 14개 유관기관 참여

** 품목별 설명회 등을 통한 애로기업 발굴 및 전문가 1:1 맞춤 상담·자문 지원

또한, 시장진입 단계에 따라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의료기기 국제인증 지원센터, 해외 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베트남, 인도네시아, 미국)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의료기기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③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환경 조성

의료기기 산업계 현장 수요를 고려하여 디지털헬스케어·체외진단·규제과학·임상시험 등 전문 분야별 특화형 전문가와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글로벌 협력 프로젝트·기술경영 등 실무형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기술교류, 투자유치 등 개방형 혁신을 위한 비즈니스 교류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선도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③ 화장품

① 기업 해외진출 지원으로 수출시장 다변화 촉진

중소 화장품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해외시장 정보와 수출국 피부·유전체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GMP 인증 획득*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을 시행한다.

* 국내 GMP 인증 시 중국 일반화장품 독성시험 면제, 동남아 바이어는 정부 인증 GMP 선호

또한 미국·중국 등 주요 수출시장의 규제강화*에 우리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화장품원료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정보를 수출기업에 제공한다.

* (美) 화장품 안전성 입증 의무 신설('24.7월), (中) 모든 원료에 대한 안전성평가 실시('25.5월)

세계 시장의 약 40%*를 차지하는 아시아 지역의 규제 협력 강화를 위한 '원아시아 규제 포럼'을 오는 10월 국내에서 개최하고, 주요 수출국인 중국·미국 등과 양자 협력을 강화**하며,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정회원(정회원 8개국, 준회원 7개국)으로서 규제 당국자 협력도 지속 추진한다.

* '21년 화장품 세계 시장(4,349억 달러) 중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1,707억 달러 차지(유로모니터 '23.1월)

** 전자 판매증명서 상호인정(中, '23.8), 中 약감국과 MOU 체결('24.2), 美 FDA 초청 간담회('24.7)

② 산업 기반·인프라 조성으로 화장품산업 체질 개선

중국·미국 등 주요국 안전 규제 대응을 위한 ▲안전성 평가제의 국내 도입, ▲안전성 평가 전문기관 설립 추진 및 ▲안전성 평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수출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며, 클린화장품·천연물화장품 등 미래화장품 개발 지원을 위한 시험·검사 인프라*도 조성한다.

* 클린화장품 산업화 지원센터(충북 오송), 천연물화장품 시험검사·임상센터(전북 남원), 청정·기능성 소재 제품개발 지원센터(제주, 강릉)

제약·의료기기산업처럼 화장품산업도 체계적 육성·지원을 위해 식약처 등 유관 기관, 관련 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가칭)「화장품산업진흥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③ (R&D) 미래 맞춤형 화장품 개발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화장품산업의 지속적인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품질 화장품 연구개발 지원 필요성에 따라 ▲필수 고부가가치 기초소재, ▲피부건강 증진 기반기술 및 ▲규제대응 평가기술 개발을 위한 R&D 사업을 추진한다.

④ 수출경쟁력 인프라 구축

① 바이오헬스 글로벌 리더십 확보

각국 정상·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세계 바이오 서밋”(WHO-복지부 공동개최, 11월)과 바이오의약품 개발동향이슈 등을 논의하는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GBC, 9월)”를 개최하고, CEPI(전염병예방혁신연합) 등 국제기구에 참여하여 글로벌 리더십을 기반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논의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② 규제역량 강화 및 애로사항 해소

▲국제 규제협약체 내 위상 강화를 통한 규제조화를 추진하고, ▲WHO PQ 인증기업 확대를 위해 국내 희망업체 대상 1:1 맞춤형 컨설팅 및 ▲GMP 현장 기술 자문 등을 통해 규제역량 강화를 추진하며,

규제개혁마당,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수출 규제지원 전담체계 등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간다.

③ 투자·금융 및 지재권 육성·보호 지원

창업기업의 초기 투자를 위해 ▲민간투자를 연계한 정부 R&D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상담·코칭 및 설명회 등을 통해 투자유치를 지원하며, ▲창의적 아이디어가 창업·제품화로 연계되도록 아이템 검증부터 자금연계를 지원한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 기반 마련을 위해 지적재산권 확보를 지원하고, ▲수출 리스크 완화를 위해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 및 분쟁 대응을 지원한다.

정부는 오늘 발표하는 「보건의료산업 하반기 수출 확대 방안」의 차질없는 이행점검을 위해 분야별 기업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연말에는 올해 실적 분석 및 '25년 전망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안건3] 바이오헬스 규제장벽 철폐 및 법령 정비

바이오헬스혁신위는 이전에 발표된 규제개혁 과제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24.4.4일)에서 발표한 킬러 규제 혁신 방안 중 '분산형 임상시험(DCT) 도입 기반 마련' 과제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검토하였다. DCT 도입기반 마련을 위해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라 분산형 임상시험을 시범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 (규제혁신 1.0) 34개, (규제혁신 2.0) 57개, (혁신위 발굴과제) 15개 과제 → 총 106개 과제 중 42개 완료하여 64개 과제 추진 중

한편, 바이오헬스혁신위 산하에 설치된 규제개혁마당은 106개 신규과제를 발굴하고, 이 중 67개 과제를 접수하여, 38개 과제에 대해 부처·전문가 자문단 검토를 완료하였다. 검토 완료 과제 38개* 중 연구중심병원 의료기술협력단 설치 관련 세제 지원 등 킬러 규제 6개를 선정하여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 수용(6건), 일부수용(2건), 기개선(9건), 지속추진(1건), 수용곤란(11건), 중장기 검토(9건)

6개 과제에 대한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연구중심병원 의료기술협력단* 설치 관련 세제 지원 (복지부, 기재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24.7월)에 따라 설립 허용

의료기술협력단의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기부금) 및 ▲연구개발 재원 확보 목적의 사업수익 적립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 및 사업수익의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법인세 및 동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24.12월)

* 특례기부금단체(법인세법 24조2항1호), 일반기부금 단체(법인령 39조1항1호)에 의료기술협력단을 추가(개정)하여, 의료기술협력단 기부금에 대한 상증세 면제(상증세법16·48조, 령12조)

** 사업수익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특례 대상에 의료기술협력단 추가(조세특례제한법 74조 1항 개정)

② 미성년자 대상 소비자대상직접시행(DTC) 유전자 검사* 가이드라인 개선 (복지부)

미성년자 대상 DTC 유전자검사를 위해서는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미성년자 대상 연구 논문을 제출해야 하나 사실상 제출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연구용역('24년), 시범사업('25년.上)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해나갈 예정이다.(~'25년)

* 유전정보는 일반적인 건강정보(질병, 신체 상태 등)와는 달리 일평생 변화가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미성년자 대상 연구는 거의 없음

③ 한약(생약)제제 과학적 품질 관리 체계 마련 (식약처)

구성 생약별로 정량시험하는 현행 품질관리 시험법(정량법)의 높은 비용부담으로 생산중단 품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표성분을 혼합하여 동시에 분석하는 시험법(동시정량분석법)을 개발하고, 동시정량분석법을 품질관리 시험법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한약(생약) 규격집을 개정할 계획이다.(~'24.12월)

④ 신의료기술평가 유예기간 연장* 관련 구체적 가이드 마련 등 (복지부)

* 일정 요건 충족 시 비급여 기간 1회 연장(2+2년) 허용(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 ~'24년)

평가 유예기간 연장(규칙 개정)에 따라, 연장 허용기준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가이드라인 및 유예기간 종료 기술의 연장신청 공백* 방지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산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24.12월)

* 유예 만료와 추가 유예신청 간 시차에 따라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는 공백기간이 발생 우려

** 개정안 부칙에 개정 전 실시중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도 소급 적용하는 내용 포함

⑤ 중소기업 연구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 확대(의사, 약사 등) (중기부)

* 중소기업연구인력 지원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현재 의사·약사 등은 중소기업 연구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을 통해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중소기업의 전문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인건비 지원대상에 의약학 전공자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사업지침 개정('24.6월 완료) 및 사업공고문을 수정('25년)하여,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25년~)

⑥ 혁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임시등재 관련 환자동의서 간소화 (복지부)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임시등재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관련 환자, 의료기관이 작성하는 서류 양식 및 절차의 번거로움이 혁신의료기술 활용에 장애 요인이 되어, 혁신의료기술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통합하는 등 관련 양식,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24.12월)

이날 바이오헬스혁신위 김영태 부위원장(서울대병원장)은 “바이오헬스 산업은 제2의 반도체 산업이자 국민 건강과 국가 안보 확보를 위해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분야”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혁신위 차원에서 점검하고 지속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별첨> 제4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안건 요약본

담당 부서	보건산업정책국 바이오헬스혁신추진단	책임자	부단장	박성원 (044-202-2915)
		담당자	사무관	김관호 (044-202-2916)
			사무관	김태경 (044-202-2919)
			사무관	이장규 (044-202-2917)
담당 부서 <공동>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한숙 (044-202-2901)
		담당자	사무관	박정환 (044-202-2903)
			사무관	최정상 (044-202-2902)
담당부서 <공동>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책임자	과 장	오창현 (044-202-2750)
		담당자	사무관	조영기 (044-202-2961)
담당부서 <공동>	질병관리청 기획재정담당관	책임자	담당관	이선규 (043-719-7010)
		담당자	사무관	김우정 (043-719-7221)
담당부서 <공동>	질병관리청 mRNA백신 국산화 추진단 준비 TF (백신연구개발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유경 (043-913-4150)
		담당자	연구관	김미영 (043-913-4151)